| 풍경으로의 여행 |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

안산다문화마을특구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2019년 1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7개국 8만 6천여 명. 그중 57개국 2만 1천여 명이 원곡동에 거주한다. 원곡동 일대는 이런 특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9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됐다. 그 후 11년. 안산다문화마을특구는 여권 없이 떠나는 대한민국 속 작은 세계로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마을특구

안산다문화마을특구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과 닿아있다. 안산역 1번 출구로 나와 중앙대로를 지나면 안산다문화마을특구의 중심이랄 수 있는 다문화음식거리가 나온다. 도로 변에 안내판이 있지만, 안내판이 아니어도 이곳이 안산다문화마을특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건 건물에 내걸린 현지어 간판들 때문이다. 식당과 상점은 물론 은행 같은 편의시설도 외국어 간판을 사용한다. 현지어를 가장 크게,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작게 써넣는 식. 글자뿐

전통의상 체험을 하고 있는 관광객

핑거피아노라고도 불리는 칼림바

영화 ET의 주인공 모델이 된 가나의 인형

베트남 식당과 상점이 모여 있는 골목

아니라 디자인과 색감까지 나라별 특색을 반영해 제작하다 보니 이곳이 한국인지 베트남 혹은 러시아인지 헷갈릴 정도다. 오가는 이들의 대화 속에 섞인 낯선 외국어도 안산다문화마을특구의 이색적인 풍경에 한몫 톡톡히 한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안산시세계문화체험관부터 찾아야 한다. 다양성의 힘을 알리기 위해 2012년 다문화홍보학습관으로 개관한 이곳에는 50여 개 나라에서 수집한 1400여 점의 전시물과 다양한 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핑거피아노라고 불리는 '칼림바'와 놋그릇처럼 생긴 악기의 테두리를 문질러 소리를 내는 '싱잉볼' 같은 전통악기들은 아이 어른 모두 신기해하는 전시물. 영화 〈ET〉 주인공의 모델로 알려진 가나 전통인형 '아쿠아바 여인'과 러시아의 둘리로 통하는 '체부라쉬카'도 흥미롭다.

하네츠끼와 켄다마 같은 일본 전통놀이기구도 재미난 즐길거리다. 켄다마는 줄에 매단 공을 수직운동시켜 손잡이 아래와 좌우의 홈으로 받아내는 놀이다. 깃털달린 공을 나

안산시세계문화체험관

무라켓으로 주고받는 하네츠키는 정월에 여자아이들이 기모노를 입고 즐기던 것으로 게임에 진 사람에게는 이긴 사람이 먹으로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재미난 벌칙이 주어진다.

영국 근위병 근무복에서 우즈베키스탄 전통혼례 의상까지 250여 벌을 갖춘 전통의상체험실도 놓치기 아깝다. 안산시세계문화체험관에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나이지리아, 콩고, 베트남, 태국 등 7개국 8명의 지도교사가 돌아가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체험관 개별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휴무), 관람 및 체험은 모두 무료다. 단체견학은 하루 3회(10:00 11:00 13:30) 진행되며 안산시세계문화체험관 홈페이지(https://mc.ansan.go.kr)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현지 맛 그대로 즐기는 미식여행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을거리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이고 보니 먹을거리도 그만큼 풍성하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에는 다문

러시아식으로 꾸민 레스토랑

태국인이 운영하는 태국식당

외국인들을 위한 이색적인 먹거리들

껍질째 소금에 절린 오리알

화음식거리를 중심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베트남,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현지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184곳이 영업 중이다. 그중 62개 업소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현지 조리사 추천제'에 따라 현지 조리사를 고용해 음식을 만든다. 현지인이 사장인 식당에서 현지에서 초빙해온 조리사가 음식을 만드니,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 날아가야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여기서는 쉽게 맛볼 수 있다.

실제로 안산다문화마을특구에서는 같은 쌀국수도 태국 식당과 베트남 식당의 맛이 다르고, 중국 식당과 우즈베키스탄 식당에서 내는 양꼬치는 전혀 다른 음식이다. 인테리어도 나라별로 차이가 많아 어느 나라 어느 식당을 찾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식당 종업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한국어 소통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문화음식거리에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도 식당 메뉴만큼 많다. 중국 사람들이 아침식사 대용으로 즐긴다는 어른 팔뚝만 한 꽈배기와 중국식 호떡, 러시아인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고기빵 삼사는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다. 껍질째 소금에 20일 이상 절인 오리알과 노릇하게 튀긴 통미꾸라지는 그 맛이 어떨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색적인 음식들이다.

다문화축제

안산다문화마을특구에서는 이국적인 축제도 많이 열린다.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셋째나 넷째 주 일요일에 세계문화 힐링콘서트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무대광장에서 열리고,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5월 경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시화호 달전망대, 누에섬 등 주변 여행지 풍성

시화호 달전망대는 안산시 대부도와 시흥시 오이도를 잇는 시화방조제 한가운데 있는 가리섬에 자리하고 있다.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다. 25층 높이의 시화호 달전망대에서는 360도 파노라마로 서해와 시화호를 감상할 수 있다. 바닥 일부를 강화유리로 마감한 스카이워크도 인상적.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화도 달전망대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누에섬 전망대에서 바라본 제부도

시화호 달전망대 스카이워크

누에섬은 안산 관광의 랜드마크 같은 존재다. 하루 두 번 썰물 때 열리는 바닷길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다. 누에섬 등대전망대에 오르면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제부도와 서해가 한눈에 담긴다. 탄도항에서 등대전망대까지는 편도 1km 남짓으로 천천히 걸어도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누에섬으로 갈 때는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누에섬으로 가는 탄도항 앞에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있다. 대부도 갯벌에 사는 다양한 갯것과 섬마을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소개하는 공간이다. 로비의 대형 수조에서는 민어와 농어, 황금개볼락 같이 우리 바다를 터전삼아 살아가는 바닷물고기들도 만날 수 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는 서해에 접한 안산에서 최고의 낙조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다. 바다 위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전시실

구봉도 낙조전망대

구봉도 낙조전망대

에 조성된 전망대에는 파도에 비치는 아름다운 노을빛을 형상화한 멋진 조형물도 마련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까지는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해안길을 따라 가거나 구봉도 능선으로 이어지는 대부해솔길을 이용해 갈 수 있다. 밀물 때는 해안길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대부해솔길을 이용해서만 전망대까지 갈 수 있다.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전망대까지는 편도 2km. 걷는 게 부담스럽다면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를 이용해도 좋다. 전기차 탑승료는 편도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여행정보

찾아가는 길

지하철 4호선 안산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와 중앙대로를 건너 안산다문화마을특구로 이동 (도보 5분)

맛집

DIEU HIEN QUAN(디유히엔콴 베트남 요리, 단원구 다문화1길, 031-493-3756, 현지 조리사
수왈 태국 요리, 단원구 다문화길, 031-494-0338, 현지 조리사
천자매 샤브샤브 – 중국 요리, 단원구 원곡로, 031-492-7771, 현지 조리사
오뚜기 수타면 중국 요리, 단원구 원곡로, 031-507-3689, 현지 조리사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요리, 단원구 다문화2길, 031-492-6984, 현지 조리사
IMPERIA LOUNGE 러시아 요리, 단원구 다문화2길, 031-495-4022, 현지 조리사

숙소

로자벨호텔 : 단원구 원곡공원로, 031-491-0205
호텔스퀘어 단원구 동산로, 031-490-2000, http://www.hotelsquare.co.kr
호텔클로버 상록구 양지편로, 031-417-9300
C&B호텔 상록구 상록수로, 031-406-1212